

# 全羅北道酪農 發展 方向



全 羅 北 道 畜 產 課  
酪 農 係 長 李 春 翼

## I. 서 론

○ U.R협상 및 W.T.O 체제 출범이후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자유화되고 특히 유제품은 다른 주요농산물에 비하여 수입개방의 시기가 빨라 '95년부터 전면적인 수입자유화가 실시되어 국내의 낙농산업은 국제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까.

대내적으로는 임금인상, 경영자의 노령화, 후계자 부족, 축사환경시설 비용증가등이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국내 낙농산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절치 못한

우유위생 논쟁으로 급격한 우유소비의 감소와 식품, 유가공업계에서 수입 모조분유의 대량 사용으로 분유재고가 누적되어 일부 유업체는 도산되고 축협유가공업체는 유대지급 중단 및 분유로 일부 유대를 지급하게 되어 낙농가들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 전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또다시 인상될 기미가 있어 조사료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조사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낙농가들의 경영비가 증으로 국제적 경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낙농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북 낙농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가능 잠재력이 충분하여 2000년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낙농도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는 낙농업이 국제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사환경 개선으로 조사료생산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절소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선형심사와 등록을 거쳐 고능력우 정액을 100% 보조지원하고 조사료 기계화단지를 조성 80% 노동력 절감과 낙농단지를 조성 조사료재배 성력화 및 협업체제 구축으로 노동력부족에 따른 고임금 구인난을 해소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산유능력 검정을 전 농가에 확대 실시 연간 산유량 7,500kg까지 증산시켜 절소 연간 두당 3,000천원의 소득을 올리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II. 本 論

### □ 現 況

#### ○ 절소사육동향

(단위 : 천호, 천두)

년도별 구분	'85(A)		'90(B)		'94(C)		'95(D)		비율(%)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A/D	B/D	C/D
전국	44	390	33	504	26	552	24	553	142	110	101
전북	2	17	1.9	26.3	1.5	37.5	1.5	40.5	201	154	108
%	4.6	4.4	5.8	5.2	6.0	6.8	6.3	7.3			
호당 사육두수	8.9 (8.5)		15.3 (13.8)		21.2 (25)		23 (27)				

※ ( )전북 1호당 사육규모임

- 우유생산 : 127천톤/년(두당 산유량 6,200kg/년)-착유두수 20,539두
- 유업체 : 4개소(롯데, 한덴유가공, 전주축협, 임실낙협)-처리능력 668톤
  - 집유량 : 394톤
- 답리작 및 청예사료작물 재배 : 21,633HA(초지 3,633, 답리작 3,000, 청예 18,000)
-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 62개단지 ('90 : 3, '91 : 13, '92 : 13, '93 : 13, '94 : 13, '95 : 7)
- 낙농장비 보급 : 2,396대(자동보온급수기, 유두캡살균기, 전기제각기, 예비냉각기, 액체질소보관고등)
- 젖소능력개량사업 정액공급 : 53,100두(1S/T당 25,000~30,000원 상담)

#### □ 酪農事業 推進方向

- 사양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낙농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유일하게 생산가격이 보장되어있는 품목으로 국제경쟁력의 대응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다른 농축산물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품목임.
  - 같은 여건에서 보다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젖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양기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젖소의 혈통을 정확히 파악 우수한 형질

이 후대에 유전되어 산유량, 체적, 체형 등에서 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젖소로 계획교배와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규모화 낙농 정착으로 노동절약형 기술체계의 확립
  - 부업낙농은 규모의 영세성 및 기술의 낙후성으로 경쟁을 이겨내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부부중심 가족노동으로 규모화하여 노동력 절감등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부부중심의 가족노동으로 착유우 50여두까지 사육이 가능하므로 규모화 낙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젖소경쟁력 시설자금을 착유시설의 자동화(텐덤)시설에 중점지원할 계획임.
-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
  - 용수개발, 진입로 개설등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를 정비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조사료 급여수준을 증가시켜 고품질 우유 생산과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임.
-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 조사료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축사시설 및 장비(트랙타등)를 기계화하고 성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계의 공동이용으로 노동력의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임
  -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90년도에 본도에서 처음 시도하여 91년도에 전국으로 확

대된 사업으로 노동력 부족과 고임금 구인난을 최소화하고 조사료 증산을 위해 본도에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임.

○ 젖소능력 개량사업

- 고능력 젖소개량은 여러마리 사육하는 것보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향상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역시 '90년도 본도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사업으로 낙농가의 의지와 종축개량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가 다져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 목부낙농에서 가족 낙농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낙농장비의 현대화로 사양관리의 편리성 제공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낙농으로 발전시켜야 됨.

○ 낙농단지 조성사업

- 분산되어 있는 낙농농가를 한곳으로 집산화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단지화하여 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으로 노동력의 절감과 고품질 원유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낙농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

○ 낙농 경영능력 향상

- 국제화 시대에 규모 낙농의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사양관리 기술의 향상과 새로운 경영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경영을 비교분

석하여 알찬 낙농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함.

○ 유·육 복합경영의 확립

- 소고기 수입등으로 숫송아지 및 노폐우 가격이 하락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의 전면 개방시에는 그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수한 숫소비육으로 육질이 좋은 정육을 생산지역 특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득 증대 기여

○ 유제품의 국산 차별화 정책

- 유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그리고 고품질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고급 유제품을 개발소비를 확대 국산 유제품 시장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

이와같은 방향으로 전북도 낙농산업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원유 및 유제품이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 낙농가, 관련단체가 합심하면 유제품의 수입개방에 흔들리지않고 가장 앞서가는 낙농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낙농가는 사양관리기술의 축적, 젖소개량사업의 추진, 규모화 낙농정착, 경영기술향상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에서는 조사료 기계화단지, 축사시설 자동화, 조사료생산 기반 정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농단체(조합)에서는 낙농가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농가 스스로 노동력 절감과 성력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 우리도는 2000년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

수한 낙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推進實籍('90~95)

-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 17,365백만원
  - 기반조성, 사육시설, 조사료생산, 장비 및 기타지원
- 젖소능력개량사업 추진 : 53,100두(신규 32,100, 기지원 21,000)
  - 사업비 : 1,541백만원
  - 선형심사 및 등록으로 혈통관리
  - 고능력 수입정액으로 고능력우 개량 (산유량, 체형, 체적 등)
  - 수정현황 : 42,745두-생산두수 21,600 (우 9,695, ♂ 11,905)  
생산된 소의 착유량 : 26~31kg (28.5kg)
-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 977백만원-2,396대
  - 급수의 일정수온 유지로 산유량 증대, 신선하고 우수한 양질의 원유 생산 정액의 안전보관으로 적기수정으로 수태율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
-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 6,230백만원-62개소
  - 조사료 재배지 확보, 장비의 공동이용으로 협업체 구성
  - 노동력 절감
- 젖소단지사업 : 2개소 (완주 비봉, 김제 금산)

- 답리작 재배사업 : 18,000Ha (답리작 3,000, 정예 15,000)
-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 3,633Ha (1,085호)
- T.M.R 제조시설지원 : 2개소-348백만원

□ '96 支援事業

- 사업비 : 21,130백만원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기반 정비구축, 능력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조사료기계화단지 확대, 낙농단지 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자 함
-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 14,236백만원
  - 기반조성 : 목장진입도로 개설등 12개소-48백만원
  - 사육시설 : 축사시설의 6종 208개소-11,256백만원
  - 조사료생산 : 초지조성외 3종 1,019개소-1,025백만원
  - 장비 및 기타 : 기계화 단지조성외 4종 43개소-1,466백만원
- 젖소능력개량사업 : 328백만원 (도비 150, 시군비 150, 자담 28)
  - 고능력 수입정액 지원 : 10,000두 (신규 4,000, 기지원 6,000)
  - 1스트로당 37,000원
    - 정액대 30,000(전액보조)
    - 선형심사 및 등록비 : 7,000원

- 조사료기계화단지 : 5개소-500백만원  
(지방비 100, 축진보조 150, 용자 200, 자담 50)
- 낙농단지 : 2개소(김제, 임실)
  - ┌ 김제 : 2년차
  - └ 임실 : 신규(1년)
  - 사업비 : 4,880백만원  
(지방비 419, 축진보조 611, 용자 2,685, 자담 1,165)
- 사료작물 재배 : 18,000Ha-906백만원  
(지방비 181, 축진보조 322, 자담 403)
  - 양질의 조사료생산-배합사료비 절감
-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 660대-280백만원  
(도비 84, 시군비 84, 자담 112)
  - 자동보온급수기 300, 유두캡 살균기 200, 액체질소보관고 100, 예비냉각기 60)

### Ⅲ. 結 論

요즈음 낙농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과 유업체, 낙농협동조합, 낙우회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

려는 협동심을 발휘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면 본도 낙농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본도 낙농가들의 경영개선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고, 둘째 유가공업체의 시장개발이 타유업체보다 넓고, 셋째 조사료 생산기반이 풍부하여 경영비 절감여건이 뚜렷하여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볼때 전라북도의 낙농산업은 전망이 매우 밝아 2000년대의 한국낙농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확대 주장과 조사료생산 기반정비, 조사료기계화단지, 낙농장비 보급, 착유시설 및 축사의 자동화로 성력관리를 구축 노동력 절감으로 고임금, 인난을 최소화하고, 낙농단지를 조성 완벽한 축산분뇨처리로서 환경오염방지과 장비 및 기계의 공동이용으로 경영을 합리화하여 생산단가를 낮추고 젖소 산유능력 점정사업을 전농가에 확대 실시 고능력우 개량으로 산유량을 두당 7,500kg이상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화 낙농으로 정착시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낙농도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